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3월 28일(금)  
--(음력 2월 29일)--  
Пятница  
28 марта 2025 г.  
№ 12 (1212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3월 27일은 세계 연극의 날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센터의 '위험한 관계'연극 배우들이 인사하는 장면.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사회연금, 4월 1일부터 지역 비율 14.75%로 조정

2025년 4월 1일부터 지역 비율이 14.75%로 조정된다. 사회연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연금 수급자의 최저생활비의 상승과 관련돼 있다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국가두마에 정부 보고서를 전달하며 발표했다. 사회연금은 연방예산의 자금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연금 규모는 누적 근속연수나 연금 적립 정도와 관계가 없다. 사회연금은 러시아 연방 근본 행정자치지역에 연금수급자의 최저생활비와 동일하다. 러시아 연금수급자의 평균 최저생활비는 1만 5천520루블리로 사회연금은 장애인, 고령, 부양인 부재, 고아의 경우 러시아 국민에게 지급된다.

###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기념 전시회 개최

4월 2일(수)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탄생 75주년을 맞아 <인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시회가 개관된다. 방문객들에게 이고리 파블로위치의 가족 기록물, 개인 소장품, 인상적인 수상 기념품이 전시된다. 전시품 중에는 경제 및 산업 발전을 비롯해 과학, 문화, 스포츠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업적을 기릴 만한 유품들이 있다.

전시회는 4월 25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 사할린한인 단체 3월 29일 행사

이번 3월 29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다운 사람' 포용축제가 펼쳐지는데 이 축제의 협력자로서 사할린주한인협회가 나섰다.

또한 이날 창립 3주년 행사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시티몰' 쇼핑센터에서 '입춘: 봄이 왔다'란 행사가 개최된다. 이곳에서 한식을 시식해볼 수 있고 공예활동교실도 열린다.

사할린한인연합회는 29일 새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호소문을 채택하여 회원가 입문제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 사할린주, 주민들에게 특히 의약품 공급 위해 감찰센터 설립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주에 특히 의약품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 도입된다. 해당 문서는 1일 - 3일 이내에 특히 의약품으로 처방약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보건부를 비롯해 사할린주 의료정보분석센터, '파르마치야' 약국 조직망의 대표로 구성된 감찰(모니터링)센터가 표준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감찰한다.

주지사와 해당 부서 장관은 의료기관의 대표들(의사, 약사, '건강 안내자')과 만남에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에게 특히 의약품 공급 체계의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 사할린주, 대테러 안전정책 강화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사할린 지역 안전확보에 따른 정책 강화를 주제로 지역 대테러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고로 중요한 시설과 사회적 주요 시설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안전한 도시' 국가정보시스템 종합 기관프로그램에 영상감시 체계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영상감시체계를 현대화하고, 특성을 개선하며,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의 시설들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안면인식의 기술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감시카메라 체계와 현금인출기(ATM)의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안전한 도시' 체계에 통합하는 절차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대 세태 속에 세계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사할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이다. 우리의 보안체계를 늘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일은 전문가들의 훈련, 현대적 기술장비를 갖춘 시설 구축, 부서 간의 상호협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작업도 적잖이 중요한 가운데 비상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여러 비상호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또한 모든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모든 주민들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사회적 분야 기관들에 적절한 보안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탐지기 범위의 성능과 작동상태를 확보하고, 감시카메라의 체계 개선, 테러행위의 위협이 있을 경우 관련 보안시설의 직원과 담당자의 대처 준비에 따른 정기적 훈련 실시를 지시했다. 또한 회의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자들의 이념에 대한 정보 대응문제와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와 티몹스코에 간 도로, 올해 아스팔트 포장 시작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출장 차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구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중앙 문화회관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어 큰 관심을 모으며 300석 규모의 강당은 주민들의 참석으로 빈틈이 없었다.

만남에서 즉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와 티몹스코에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들, 이 도로들을 통해 사할린의 다른 지역들과의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간선도로의 상태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도로는 총 60km가 넘고, 봄과 가을에는 물웅덩이와 구덩이로 여름에는 흙먼지로 가득한 흠길이다. 도로의 상태는 지역의 경제와 사회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만약 정상적인 시멘트 길이였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숙박업계의 사업은 추가 동력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험한 도로를 따라 이웃 중심지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주 정

부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와 티몹스코에 마을 간 대대적인 도로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배정했다. 도로공사는 올 여름에 시작한다. 아스팔트로 탄탄히 포장된 도로는 관광개발 및 다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확답했다.

사할린 도로교통산업부의 막심 조골레브 장관에 따르면 올해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부터 9km 구간의 도로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의 역사적 시설 보존에 대한 문제 또한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는 점이 주목되며, 또한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보수공사,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만남을 통해 정부 총재는 23개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이 모든 요청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사할린주 - 최전선으로' 사할린주의 메달을 공로가 많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여했다.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우리는 긴 길의 시작에 있습니다"

운명과 우연의 일치는 동일하다. 새로운 사회단체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사할린한인'시한인회 활동가들은 말한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 3년을 2025년 3월 29일에 맞이하게 된다.

누군가 단체 활동의 중간 결과, 중간 평가를 하기보다는 단체를 이끄는 분들에게 '사할린한인'시한인회는 어떤 단체인지 일문일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다.

## 천영곤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

문: 이 단체는 다른 사할린한인 단체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사람들, 팀 구성원이 다르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재능과 기회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 사회를 통합하고 한민족 문화와 한국어 대중화를 해야 한다는 사상이죠. 이걸 추진하는 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사업에 헌신하는 분들이죠. 바로 우리 안채순 부회장과 그가 담당하신 여성팀의 김 스페틀라나, 오 옐레나, 윤 갈리나가 있으며, 우 미하일과 그가 담당하는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문: 단체에 많은 협력자가 있나요?  
답: 네, 많아요. 짧은 기간 안에 '사할린 한

인'은 친구, 협력자들을 섭외했는데 그중 사회 단체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과 구축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오스트로브(섬)무술 센터(관장 안수학)와 친하게 지내왔고, '한글'장작회(회장 배 안젤라)의 참여 없이는 단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았습니. 장애아들을 위해 활동하는 '빅토리아'단체와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전에 생긴 우호적 협력자 중에는 '제우스' 사할린주 특수군사작전재향군인회(회장 나자르 아르한겔스키)와 글로벌태권도연맹의 사할린주태권도협회(회장 글레브 부토린)가 있습니다.

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상황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이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제안이라도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진행 된 계획으로는 '행복한 문화,' 한민족 문화의 날, '잊혀진 전통 풍습과 절기'란 주제로 추진 중인 기획도 있습니다. '동짓날'행사는 이미 진행했고, 이번에는 '입춘: 봄이 왔다'문화 계몽행사를 펼칩니다. 또 하나의 큰 기획은 '우리를 위해'이고, 한 달간 진행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교훈'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여러 기획이 있는데 오늘은 이미 이뤄진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아직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채순(갈리나 겐나지예브나) 부회장:  
문: 어떻게 이 단체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답: 저는 관심과 호기심 때문에 이 단체에 들어왔고, 사회활동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웠고, 유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단체에서 적극 활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모든 자유시간을 우리 단체활동에 바치고 있죠.

문: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모든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한민족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일깨우고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자선활동을 하고, 노년층을 돕고 지원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리 활동교실나 축제 연회를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고, 좋은 자원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무엇보다 '사할린 한인'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가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사할린 한인'행사가 매우 흥미롭고, 현지 한인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사회사업을 시작했을 뿐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진할 뿐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한국 속담도 있듯이.

(본 기사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에서 제공)

# '사할린한인'시한인회 창립 3주년 축하문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단기간에 여러분의 단체는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인정을 얻어냈고, 사할린의 다국적 주민들과의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정신은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서로서로를 도우며,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체가 앞으로 더욱 번영하고, 창의적인 성취를 이루며, 함께 하는 활동에 찬란한 순간들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안수학 '오스트로브' 무술센터 대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사회운동의 협력자로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지역 단체 창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한인 동포들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공동 협력을 이가기를 바라며,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추진하는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를 기원하며, 운영위 위원들과 회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빅토리아' 자유티비리단체가 멋진 친구이자 과학과 예술의 풍성한 후원자인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3년간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는 사람들을 향한 지원과 고운 말과 고운 행위로 풍성하다는 것을 많은 사할린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체는 우리에게 있어 믿음직한 버팀목이며, 따뜻한 손길로 생활현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단체의 따뜻하고, 관대함 마음이 마르지 않고, 모든 선한 행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수백 배로 커져 돌아가길 기원하며, 건강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며, 최고의 소망과 감사로 축하드립니다!

'빅토리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단체

## 이 모 저 모

### 승전 80주년 위대한 승리의 목소리,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 들을 수 있어

대조국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승리의 소식 듣기> 독 특한 행사가 시작되었다. 전화:(8 (800) 200-09-05)를 하면 국민들은 1945년 승전 선언문에 대한 기록된 음성 들을 수 있다.

<승리의 소식 듣기>는 5월 15일까지 들을 수 있다.

###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могут услышать голос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спустя 80 лет

К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стартовала уникальная акция «Услышать Победу». Позвонив по номеру: 8 (800) 200-09-05, граждане могут услышать архивные аудиозаписи о провозглашении Победы в 1945 году.

«Услышать Победу» можно будет до 15 мая.

### 러시아, 유로비전에 도전하는 <인터비전> 노래 경연 개최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인터비전> 국제 노래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7억5천만 루블리를 배정한 가운데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해당 조치에 서명했다. <인터비전>은 2022년 <유로비전> 노래 경연이 러시아의 참가를 배제시킨 데 대한 대안으로 개최된다.

타스 통신이 문서를 인용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술의 전통> 국민적, 세계적 문화의 발전과 문화적 유산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재단에 보조금 제공으로 러시아 연방 외무부에 자금이 배정된다.

앞서 국제문화협력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별 대표인 미하일 슈비드코이는 <인터비전>이 2025년 가장 중요한 음악행사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해 2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작곡가이자 음악 연출가인 막심 파제예브는 <유로비전>의 노래 경연과 특성상 유사한

<유로아시아> 새로운 음악경연대회 개최 준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파제예브의 말에 따르면 노래 경연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터비전> 재탄생에 대한 아이디어는 2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 노래 경연은 1970년대와 80년대 사회주의적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모았었다.

러시아 <인터비전>은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서 진행되며, '샤만(SHAMAN)' 가수가 경연대회에서 러시아를 대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 Россия бросает вызов «Евровидению» и проведет «Интервид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ыделило 7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Интервид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аспоряжение подписан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Михаилом Мишустиным. Отметим, «Интервидение» будет альтернативой «Евровидению», от участия в котором Россию отстранили в 2022 году.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документ,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сидий Фонду сохран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и искусства».

Ранее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ихаил Швыдкой заявил, что «Интервидение»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музыкальных событий 2025 год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уже более 20 стран, включая Китай и Бразилию, вырази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участии в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Музыкальный продюсер и композитор Максим Фадее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бъявил о начале подготовки к запуску нов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Евразия», который станет своеобразным аналогом «Евровидения». По словам Фадеева, конкурс прой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а и Турции.

Идея возрождения «Интервиден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феврале. Конкурс пользовал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страна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в 1970-80-х годах.

«Интервидение» должно пройти в Москве и Мо-

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ю на конкурсе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исполнитель SHAMAN.

### 송어낚시, 사할린 주민들에게 3마리 대신 5마리까지 허락

사할린주에서 낚시 애호가들을 위한 송어낚시에 1일 어획 할당량이 증가해 현재 1인당 3마리 대신 5마리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3월 21일 법률정보 공식 포털에 게시된 러시아 연방 농산업부의 지시로 공지되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주도로 송어낚시를 위해 특별구역에서 취미낚시를 허락하도록 했음을 알고 있다. 이제 낚시인들은 낚시허가증을 필수적으로 구입하지 않고도 좋아하는 취미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송어낚시가 허용되는 구역 목록들도 55구역에서 77구역까지 확대된 가운데 낚시가 허락되는 구역들 중에 새로운 구역들로는 돌린스크를 비롯해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토마리, 흠스크, 네웰스크, 쿠릴스크, 스미르니흐가 추가되었다.

### Вместо трех хвостов – пять: сахалинцам разрешили ловить больше горбуши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рыболовов-любителей увеличили суточную норму вылова горбуши. Теперь вместо трех хвостов в одни руки можно поймать до пяти. Изменения закреплены в приказ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который опубликовали 21 март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е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помним,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разрешить любительскую рыбалку на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для этого участках. Теперь у рыбаков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иматься любимым хобби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обретать путевки.

Также расширен перечень территорий, на которых разрешен лов рыбы — с 55 до 77. К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м зонам добавлены новые участки в Долин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Холм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и Смирнинском районах.

(8면에 계속)

## 유리 트루트네브 총리: "국가 전체의 안전과 극동지역의 경제상태, 기술개발에 달려있다."

지난 3월 21일(금)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연방관구위원회 회의에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이자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의 주재로 지역들의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극동지역의 기술개발문제가 의제에 올랐다.

"오늘날 기술개발은 시급히 필요하다. 국가 전반의 안전과 경제상태가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주에 대통령이 러시아 산업가와 기업인 연맹을 방문해 연설한 가운데 러시아 재무부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업들과 법인 대표들에 대한 2만8천 개의 제재가 단행됐다고 전해졌다. 이 제재는 임시 제재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국가 경제의 약화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 기술적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사실 전 지역들에서 드론이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야쿠치야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하바롭스크 변경에서는 오프로드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파트리오테스카야(애국적)' 선도 개발지역(TOP)체계의 활동 덕분이다. 루스키섬에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센터가 건립되고 있으며, 우리로서는 생체의학과 정보공학과 같은 분야의 개발이 전망적이다.

또한 '위스토크' 벤처재단이 설립되었고, 채굴산업에서는 첨단공학기술이 도입되고, 소규모 전력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며칠 전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서는 국산 엔진 ПД-8(추력 8톤의 유망 엔진)을 탑재한 슈퍼제트-100비행기의 첫 시험 비행이 실시되었다. 이는 기술적 독립을 향한 중요한 진보이다. 지난해 10월 연방관구위원회에 기술개발 문제가 제기됐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과 현 상황을 기록하고, 핵심적인 전망들을 강조하며, 작업계획을 개진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과제이다. 국가 전반 및 거시지역의 안전과 경제발전은 기술개발 문제해결의 질과 속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지점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함께 현재 대규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분야를 추진해왔는지, 어떤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며 회의를 진행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의 과학기술개발에 대해 보고한 가운데 대통령의 지시로 사할린에 국제적 수준의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천5백 석을 갖

춘 대학생의 도시-캠퍼스의 첫 단계가 건설되고 있고, 2026년에는 과학교육센터가 건설된다. 건설 속도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과 병행하여 '대학 4.0'으로 대학이 전환된다.

사할린 지역에 첨단 공학학교가 개교하고,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해양연구 자동화기계 특별설계국 학술연구소를 거점으로 전자공학 연구소가 운영되고, 석유·가스 화학분석 연구소가 설립되며, 수소클러스터가 조성돼 여기서 기획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 동력부, 러시아 교육과학부의 지원으로 물리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소 시험장이 개장되었고, 또한 석유 및 가스 산업단지의 첫 단계가 가동되었다.

사할린에 산업통상부가 공인한 무인기 시스템개발을 위한 과학생산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러시아 최초 8개의 무인항공기시스템 개발센터 중 하나이다.

사할린의 무인항공기는 산불과 폐기물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로라'극동 항공사를 거점으로 '오로라 무인항공기시스템' 극동 통합 무인항공기가 설립됐으며, 유인 및 무인 항공기를 위한 항공훈련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8개의 훈련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 사할린주, 2025년에 16개 교육기관 보수공사 진행

올해 사할린주에서 11개 학교와 5개 유치원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한다.

16개의 유치원 구역들은 연방 프로그램에 사할린 지역의 참여와 주 예산의 재정으로 주요 보수공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이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가 사할린 주주마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언급하면서 "3년째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학교와 유치원의 제반시설의 변모를 비롯해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개선과 전 사할린주의 교육기관 구역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34개 학교와 18개의 유치원들에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사할린의 1만5천 명 이상 학교 학생들이 현대적인 편안함과 안전

한 여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8년에 건축된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의 2호 학교에서는 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비롯해 2023년-2024년에 '학교 교육시스템의 현대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학교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대대적인 보수공사 프로그램에는 수리 작업뿐 아니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발전을 비롯해 학교 제반시설 개선, 교육장비 구비, 교사의 자질 향상도 포함돼 있어 이 모든 작업은 편안하고 현대적인 교육환경을 조성시키고 있다. 주내 유치원들의 현대화 작업에도 종합적이 접근이 필요하다.

아니와의 '스카즈카' 유치원에서는 '가족'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보수공사

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한 어린시절'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교육기관 구역의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현대화 작업이 이뤄진 유치원들은 2025년 9월에 유치원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사할린주교육부 장관은 성공적인 지역 사례들을 통합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대도시 학교, 농촌 학교, 소규모 농촌 학교)에 대해 시각적 표준으로 제작된 <우수 혁신 정책도표>를 작업을 위해 제시하고, 전달했다.

사할린주에서는 향후 5년간 30%의 학교들에서 주요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지사가 추진하는 '행복한 어린시절' 유치원 구역 보수공사에 따른 지역 프로그램에 97개의 학령 전 교육기관들이 포함돼 있다.

## 사할린주, 군 복무에 국민참여로 러시아 상위 5개 지역에 올라

사할린주가 러시아 국방부에서 실시한 긴급 군 복무를 위한 국민 우수훈련 및 청년 애국교육에 따른 체계적 활동에 대한 경연의 결승에 진출했다. 2024년 총결에 따라 사할린 지역은 극동 지역에서 우수함이 인정됐고, 연방 단계의 경연에서 결승에 오른 상위 5개 지역들 안에 진입했다.

경연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아디게야 공화국, 모르도바 공화국, 코스트로마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우수 행정자치지역들로 중앙 경연위원회가 평가한다.

이 위원회에는 러시아 연방 국방부 참모총장과 주요 국방정책국 대표, 러시아 연방 국방부 군의무국과 러시아 중앙 육해공

군 협력 및 자원협회 및 러시아 연방 교양부, 러시아 연방 보건부, 러시아 연방 스포츠부, 러시아 청년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연 심사 결과 러시아 연방 국방부의 이양 깃발을 수여할 우수 지역이 선정된다.

지역의 핵심적인 애국기획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할린주에서 활동할 경연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조국수호'재단 지역 지부와 군사기술 종목 스포츠센터, 러시아 수색활동 지역 박물관, '파트리오테(애국)' 군사-애국 클럽, 지역별 징집 전 훈련센터, '아방가르드' 교육-방법론센터, '포베다'종합기념박물관, 사할린국립대 군사훈련센터, 교육기관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 차세대동포 초청 연수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올해 여름에 개최하는 '2025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참가자를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2천 430명으로 확대했다.

오는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대한민국 역사·문화·사회·경제 등을 체험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만 15~18세 청소년은 6차례, 만 18~25세 청년은 3차례로 나눠서 일주일씩 진행한다. 연수에는 내국인 차세대 855명도 함께한다.

5년 이상 지속해 해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참가

를 희망하는 차세대동포는 코리아넷(www.korean.net)으로 참가 신청서를 오는 4월 21일 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5월 2일에 공지한다. 협력센터는 전 세계 재외공관으로 참가자 모집 공고문을 발송하고 한인회·한상·한글학교 등 전 세계 동포단체 등에도 메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근 센터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간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과 성취를 되새기며, 앞으로 일궈낼 밝고 찬란한 미래 80년을 함께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코리아넷(www.korean.net), 재외동포협력센터 홈페이지(www.okocc.or.kr), 티스토리블로그(okfcamp.tistory.com)를 참조하면 된다.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금동반가사유상 / 송찬호

멀리서 보니 그것은 금빛이었다  
골짜기 아래 내려가보니  
조릿대 숲 사이에서  
웬 금동 불상이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고 있었다

어느 절집에서 그냥 내다 버린 것 같았다  
금칠은 죄다 벗겨지고  
코와 입은 깨져  
그 캐변의 표정을 다 읽을 수는 없었다  
다만, 한 줄기 희미한 미소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표정의 그것이  
반가사유보다 더 오래된 자세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다  
가야 할 길이 멀었다  
골짜기를 벗어나 돌아보니 다시 그것은 금빛이었다

"르 꼬르뷔제Le Корбюзье의 룡상 성당Часо'вня в Ронша'не (Часо'вня Нотр-Дам-дю-О)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건축학도들에게는 성지순례지나 다름 없는 곳. 건축이면 건축, 조각, 회화, 무대 미술, 신화론 등 미술이라면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 환장을 하고 나름 계획을 세워 이곳저곳을 겁도 없이 나뎠



길 때(다닐 적) 얘기지요. 아내와 함께 차량으로 도착한 마을. 프랑스에서도 외진 곳이에요.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룡상'이라고 발음하기보다 '룡성'에 가까워 저는 흥성, 흥성 이렇게 발음하고는 그랬는데, 아무튼. 기차로 가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량으로 속 올라갔다 속 빠르고 내려왔는데, 그제서야 보이는 마을의 느낌이 대단했지요. 참 예쁜 거예요, 그 작은 마을이.

그리고 시간은 흘러 흘러 갔지요. 건축에 대한 기억보다, 르 꼬르뷔제가 어떻게 구상했고, 건축은 이래야 한다는 추측보다, 제게는 아주 이상한 '지각'이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마을이 예쁘고,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어찌지 꾸준히 제 기억에 남아 있는 느낌이었기에, 제가 잘못 방문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지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야 그 작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위풍도 당당한, 귀엽기까지 하면서도 끔찍한 역사마저 품고 있는 건축물, 20세기 건축 미술의 꽃을 음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짱이지요. 쉽게 올라갔다 더 쉽게 속 내려왔으니, 종교의 힘마저 부정했던 이상한 관광이 되어버린 셈. 나중에 우연히 스트라스부르에서 빠리로 가는 새벽 운전 길, 길을 잘못 들어 '벨포'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서둘러 도로 고속도로 방향을 찾아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녘 '벨포'라는 마을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냇물 놓을 만큼 오래된 성곽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서행을 하면서 나중에 꼭 시간을 내 '벨포'에 들러, 룡상으로 가는 작은 기차를 타고, 룡상에서 며칠 머물며 그 성당을 음미해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리 쉽게 쉽게 풀리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 벨포에 들러 베이스 캠프를 친 뒤, 기차를 타고 룡상 마을에 들리는 걸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미련이라는 건 그렇게 쌓이나 봐요. 이번 주 원고는 저 역시도 어떻게 끝마칠 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거 참.

제가 끔찍하게 애정하는 송찬호 시인은 이미 이런 '지각'의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나봐요. 이 시 참,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금각사의 '미조구치'도 떠오르고, 무엇보다 제게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만듭니다. 좋은 시는 역시 좋은 철학을 품나 봐요. 존경하는 시인의 시를, 이상한 낚두리로 마무리하는 제 마음이야 늘 뻔뻔한 마음 가득일 테지만, 여러분, 결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다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아니라 '알고보니 모두 금동반가사유상'이 었더라고요. 끝."

(서울에서 허진원)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Простите меня, папа! Благодарю за все, мама!»

Ким Сан Сун(Южно-Сахалинск), 2 место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1)

По щекам бабушки текут слезы - их она не замечала, тогда я пристраивалась рядом и, вытирая ей щеки, спрашивала: «Ты плачешь?» И она всегда отвечала: «Нет»... Ностальгия стала вечным спутником людей, оторванных от корней. Война разметала нас по свету, и мы с кровоточащими ранами в сердце пытались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

Сталинская власть быстро установила порядок. И взяла под опеку угнетенный японским империализмом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Нас на острове оказалось более сорока тысяч. Были открыты школы для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организован курс в педучилище, открыты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радио и даже корейский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Загвоздкой стало то, что не все освобожденные корейцы спешили получать советские паспорта. Еще теплилась надежда, что свершится какое-то чудо, и они вернутся на родину. Люди не осознавали до конца, что той Кореи, из которой они выехали в юности, уже нет.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перекроила границы 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 и разделила единую Корею на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С раз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строем. Поэтому и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дна половина сразу взяла советские паспорта, а другая часть, неопределившихся, стала граждан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не с красным, а зеленым паспортом. А это уже совсем иной статус, больше ограничений и запретов.

### Детство у моря

Мои самые теплые школь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связаны с учебой в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ах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Там совершенно гармонично были сплетены учебные технологии лучшей в мире советской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с традициями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ы почтения к старшим, уважения к семейным ценностям и к природе. На всю жизнь сохранились чудес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когда отменялись занятия, и в погожий октябрьский денек учителя вели на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где мы любовались желтыми и багряными деревьями. Ну, точно, как у Пушкина: «в багрец и золото одетые леса...» Собирали резные кленовые листья, играли в мяч и догонялки на лужайке, а затем с аппетитом поедали обернутые в сухую морскую капусту рисовые колобки с жареной горбушей внутри, которые мама клала мне утром в торбочку.

Но это было чуть позже, а первые детск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связаны с дошкольной жизнью в поселке Взморь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где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в 1954 году я, Сан Сун(상순), и, спустя три года - младшая сестренка Сан Э(상애). Жизнь у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была абсолютно вольной. Лето мы целыми днями проводили на берегу, бегали босиком по чистейшему песку, вдыхая целительный воздух, густо пахнущий водорослями... И даже вечно пасмурное небо с серыми тучами не было помехой. Брат (오빠) с друзьями собирали ракушки и крабов, варили на костре в старом ведре, залив морской водой. После закипания ведро снимали с огня, продев палку через широкий изгиб ручки. Когда вода остывала, можно было без страха доставать за клешни краба. А потом отлить из ведра соленую воду и увидеть на дне груды ракушек в завитках. Там и хранилось наше любимое лакомство! Брат растягивал булавку, она всегда была с собой у местных пацанов, приколотая где-нибудь на краю штанин. Пользуясь ею как иголкой, опа(старший брат по корейски) убирал вначале пластину со входного отверстия ракушки, потом доставал завиток внутренностей, наколотый на булавку, как шашлык на шпажку. Нижняя часть отрывалась двумя пальцами и выбрасывалась. Верхняя - отправлялась прямо в рот: то мне, то себе, но больше так доставалось мне. Вскоре я сама научилась выковыривать ракушки. И это были наш завтрак и обед. Нужно было только не за-



быть хлеба прихватить из дома. Ближе к концу лета мы ходили в лес и поедали голубику, чернику, бруснику прямо с кустов.

Я помню сильную теплую папину ладонь, в которой все раннее детство лежала моя ладошка. Он всюду брал меня с собой: я ходила с ним за руку и на природу, и на встречи с родней, и в гости к друзьям... Когда во Взморьевское село привозили новые игрушки,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покупал их папа и приносил домой с довольным сияющим лицо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нечно, разноцветные куклы. Но лучше всего я запомнила модную девичью сумку с завязками, на концах которых висели кисточки из той же кожи, нарезанной в лапшу. Мне было тогда четыре, поэтому сумка казалась очень большой. Хоть нечего было туда складывать, я везде ее таскала - такая яркая, такая красная! А еще был другой необыкновенный подарок. Не только сверкающий, но и звонкий. Оцинкованное ведро! Такое небольшое, литра на полтора. Мама не могла поверить, что оно не настоящее, а игрушечно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аливала воду в ведро и смотрела, не течет ли? И мы с братом тоже заглядывали под днище, трогали пальчиками ребро сгиба и удивлялись - сухо!

Мой брат Сан У(상우) родился в 1950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вскоре после его рождения, взяв двухлетнего малыша, родители уехали во Взморье. После рождения первенца родители поняли, что надо срочно улучша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Жить в бараке с семьей старшего брата, у которого уже появились сыновья, стало невозможно. В поселке папе нашлась стабильная работа по душе - фотографа. Благодаря этой профессии, в нашей семье сохранились замечательные портреты р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удалось скопить денег на первое собственное жилье и вернуться в город. В 1959 году семья смогла купить новый д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м помогли родня и друзья, скинувшись на недостающую сумму. В этом чудесном сосновом срубе на окраине города мы росли здоровыми и крепкими. За нашим огородом текла речка Сусуя. В те годы она была такой чистой, что лосось поднимался на нерест.

### Культурный код

Папа устроился на работу автослесарем-мотористом в знаменитую автоколонну 1407, в которой трудились многие его друзья и знакомые. А потом и мой двоюродный брат Ден Хак(김정학) стал здесь высококлассным сварщиком. Однажды со второй полочки (первая целиком была вручена маме) он исполнил свою мечту-купил проигрыватель! Компактный, обтянутый в блестящую рыжую кожу с выбивкой под крокодила, он был ослепительно хорош! К нему нужно было приобрести виниловые пластинки. В выходной день Ден Хак, по-русски Дима, пришел к нам, благо жили они недалеко, и повез в центр. Дело было в 1960 году, мне было 6, брату 18. Мы сели на автобус номер 3 и доехали до центра города - остановки у кинотеатра «Комсомолец», это перекресток улиц Ленин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А напротив - книжный магазин «Современник», находившийся в одном из самых красивых здани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 Глеб Пак стал призер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17 по 23 марта 2025 год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ходил II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узы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имени П.И. Говорухо, собравший талантлив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со всей России.

Воспитанник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леб Па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ин Е.В.) занял почетное 2-е место в сво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Пак выступал в номинации «Гитара» (солисты) и прошел два конкурсных тур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артистизма.

Известно, что юный музыкант смог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II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имени П. И. Говорухо благодаря успешному прохождению отбора на Сахалинск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молодежных играх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

Отметим, II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имени П. И. Говорухо, приуроченный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одов, ставит своей целью повышение роли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в эстет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молодежи.

## Молод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глашают ближе узнать Корею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ъявило о начале отбора участников на программу Посещ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летний лагерь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и студентов 2025), предоставляющую возможность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историей и опы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спех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гентство пригласит 2 430 молодых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о всего мира и 855 подростк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еж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от 15 до 25 лет.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9 смен,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с середины июня по середину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культурные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еул, регионы и т.д.), встречи и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с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ью, специальную юбилей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священную 80-летию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광복절).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олод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лучше понять Корею, завести друзей,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своих корнях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олодежном обмен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до 21 апреля 16:59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через портал Korean.net.

Ссылка на регистрацию заявления: [https://rus.korean.net/portal\\_ru/customer/notice.do?mode=view&articleNo=1001899535](https://rus.korean.net/portal_ru/customer/notice.do?mode=view&articleNo=1001899535)

Подробности о программе: [Korean.net – сайт регистрации] (<https://www.korean.net>)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https://www.okocss.or.kr>)

[Официальный блог программы] (<https://okfcamp.tistory.com>)

## Книги переведут на языки мира

Сеул, 25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Фонд Daesan нача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в 2025 году на перевод, исследование и публикацию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Заявки на гранты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до 30 мая, а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в августе. Кандидаты могут выбрать одно из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ивших литературную премию Daesan, которые еще не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на целевой язык, или любое друг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которое остается непереуведенным. Лауреатами прошлогодне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Daesan стали Ким Хи Сон с романом-антиутопией «Все о 247» и Кан Ын Гё с поэтическим сборником «Магазин фантазий». В 2024 году фонд профинансировал перевод 15 корейс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од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Отобранные переводчики получают до 13 миллионов вон (8900 долларов) за перевод поэзии и 16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перевод прозы (романов, пьес или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Окончательная сумма гранта мож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целевого языка и объема выбра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Целевые языки делятся на три категории. К категории А относятся англий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немецкий, испанский, японский и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ие языки. Для китайского, русского, турецкого и других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категории В, размер гранта для каждого про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80 процентов от суммы, выделенной для языков категории А. Размер гранта для всех остальных языков составляет 60 процентов от суммы, выделенной для языков категории А.

Переводчики, владеющие корейским и целевым языком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Также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на совместный перевод. Фонд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для публикации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ейс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Зарубежные издатели, желающие публиковать корей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на других языках,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а на публикацию. Профессора,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туденты и зарубеж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еся на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гранты на исследовани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Секретарь Совбеза России посетил Пхеньян

21 марта секретарь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Сергей Шойгу прибыл в Пхеньян, где встретится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он Ыном и другими официальными лицами.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им Чхон Гю, посла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а Мацегоры и друг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он возложил венок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почтив память павших бойцов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Ранее в этом месяце в Пхеньяне побы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ндрей Руденко.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ве Сон Хи, с которой обсудил организацию «политич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на высоком и высшем уровнях».

## КНДР угрожает ответом на учения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Авантюристическое безумие США по доминированию во всём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вместе с враждебными силами превосходит все прецедент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5 марта, в связи с совместными военно-морскими учениями, которые РК, США и Япония провели с 17 по 20 мар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дах у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Учен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обострению и без того напряжё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военной ситуации до край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рампа просто «унаследовала» враждебную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продвинула её дальше, что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военную авантюр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конфронтационная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рость США усиливается, наши действия по защит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ра будут удвоены», -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нём.

## Hyundai Motor инвестирует в США 21 млрд долларов

За неделю до того, как США введут взаимные пошлины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и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ё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Hyundai Motor обнародовала сво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ланы. За период с 2025 по 2028 год она намерена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экономику США 21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пании Чон Ыл Сон, выступая 24 марта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объявл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оявшейся в Рузвельтовском зале Белого дома. По его словам, 8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в автомобильную отрасль, 6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 в металлургию и логистику, а 6 млрд 300 млн долларов - в перспекти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ключая энергетику. Чон Ыл Сон сообщил также о план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завода в штате Луизиана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в СШ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втозавода в штате Джорджия. Hyundai Motor стала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объявившей о масштаб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США.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черкнул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воей 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вскоре будут введены пошлины на автомобили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ую продукцию.

## Профицит в торговле авторскими правами 3,36 млрд долл.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профицит в торговле авторскими правами составил у РК 3 млрд 36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это на 29% больше, чем в 2023 году. Профицит в сфере авторских прав фиксируется 12 лет подряд, начиная с 2013 года. Максимальная доля профицита пришлась на авторские права в области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ключая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 2 млрд 840 млн долларов.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ключая музыку, видео и литературу,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520 млн долларов.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обещали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над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мерами по защите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за рубежом, чтобы 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был надёжно защищён, и эт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дальнейшему росту профицита.

## РК расширит систему стимулов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На фоне сохраняющей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как внутри страны, так и за её предел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удет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ть политику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Ан Док Кын, выступая 24 марта в Сеуле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совещании по вопросам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рамках данной политики планиру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систему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льгот, улучшить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а также разви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овещ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палат США, Европы, Японии и Китая,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и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мпаний. Они выраз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за усилия по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ой деловой среды и высказали ряд предложен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дальнейшее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й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и расшир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RKI**

##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Кореи вернул Хан Док Су на пост и.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24 март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клонил импичмен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Хан Док Су, который был вынесен ему парламентом почти три месяца назад.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он вернулся на пост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снова приступил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Чхве Сан Мок, который был и.о. президента, снова стал "только" вице-премьером и министром финансов.

Реш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РК по Хан Док Су не было единогласным. Пятеро из восьми судей КС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отклонение импичмента, один поддержал его, а двое сочли дело подлежащим отме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вое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по дел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и.о.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завершилось в пользу обвиняемого.

В своем решени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указал, что "не установлено никаких объективн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того, что Хан активно содействовал введению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Также суд счёл недостаточными основания для обвинений в бездействии премьера по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 от отказа назначить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о делу супруги президента до игнорирования требований парламента по кандидатам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КС все же признал, что Хан нарушил закон, затянув назначение судей, но, согласно вердикту суда, "это не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доверия народа в степени, требующей удаления с должности".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сле оглашения решения Хан Док Су прибыл в комплек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еуле и выступил с заявлением. Он поблагодарил суд за "мудрое решение" и пообещал немедленно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В своем заявлении в должности и.о. президента он призвал к прекращению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ежду правыми и левыми, распорядился срочно усилить меры по борьбе с бушующими в стране лесными пожарами, а также напомн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щищ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нарастающей торгов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с СШ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немедленно поддержали решение суда,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 это "положит конец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м парламентом процедурой импичмента" и позволит "верну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стра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ожидаемо выразила сожаление и назвала решение "шагом назад в де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баланса власт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признал Ли Чжэ Мёна невиновным

26 марта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признал лидер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а невиновным по всем трём пунктам обвин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отменён приговор суда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б избрании публич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Тогда он был приговорён одному году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с отсрочкой исполнения приговора на два года. Ли Чжэ Мён также признан невиновным в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махинациям с земельными участками в районе Пэжхён-дон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 него также сняты обвинения в даче ложных показаний в суде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данного дела. Последнее судебное решение устраняет юридическое препятствие для его участия в выборах.

**KBS World**

### В РК расшири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би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С 28 марта в РК начнётся выдача всем желающим копий мобильн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личности, что упростит пользователям подачу заявок на изменение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облегчит подтверждение личности и выдачу других документов. За копией мобиль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любой район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центр. До сих пор мобильн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ичности при обращен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 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о, в отличие от физ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их было сложно копировать и сканировать. Кроме того, отсутствовала единая база моби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ововведение обеспечит удобств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обильн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в любом месте.

**(KBS World)**

### РК поможет построить детскую библиотеку в Улан-Батор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помогает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библиотеки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ёжи в Улан-Баторе. Поддерж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офи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развитию Монголии. 26 марта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закладки фундамента четырёхэтажной пристройки к основному зданию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Улан-Батора, в которой разместится книжный фонд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ёжи. Его площадь составит 2.300 кв.м. Новое здани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безбарьерной среды, чтобы люд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могли комфорт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им.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укрепи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библиотечны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двух стран.

**(KBS World)**

## Огонь сжигает людей и реликвии. Власти Кореи ведут борьбу с лесными пожарами

Число погибших из-за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зросло до 24 человек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шуют мощные лесные пожары, с которыми власти пока не могут справиться. Количество жертв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погибло 24 человека. Тысячи людей эвакуированы, в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ах прекращено движение по автомобильным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магистралям. Огонь уже сжег деревни, древние храмы и вплотную подобрался к объектам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жары начались поч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трех регион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убботу 22 марта, когда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возникли очаги на юге и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 в уезде Санчхон,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ёнсан, уезда Ысон и возле города Ульсан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С тех пор пожарные, военные и сотрудники Службы спасения день и ночь ведут борьбу со стихией. Первоначально были надежды, что огонь удастся подавить, но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 засуха и сильный меняющийся направление ветер - привели лишь к увеличению масштабов бедствия.

За пять дней пожаров выжжено почти 20 тыс. га лесных угодий, уничтожены несколько деревень. По данным на вечер 26 мар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одтверждена гибель 24 человек - в основном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вовремя покинуть объятые пламенем деревни или попали в огненные ловушки. Также погибло не менее пяти сотрудников спасательных службы - четверо пожарных сгорели, сражаясь с огнем в горах, а в среду потерпел крушение пожарный вертолет и погиб 73-летний пилот. Как сообщили очевидцы, последним движением пилот смог увести падающую машину от деревни, где находились жители. Кроме того, 12 челове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как получившие серьезные ранения,

а еще 14 - с ранениями средней и легкой тяжести.

На фоне ухудшающейся ситуации Служба лесных угодий РК повысила уровень тревоги по лесным пожарам до наивысшего и распространила его на всю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В Андоне и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были отключены участк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движения поездов 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эвакуированы более 3,4 тысячи заключённых из тюрем в зоне риска - подобное происходит впервые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К мерам по ликвидации пожаров привлечены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сотни единиц техники - пожарные машины, спецтехника, десятки вертолетов. Однако огонь продолжает постепен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продвигаясь на восток и север к побережью, а также к крупнейшему национальному горному парку страны Чирисан.

Серьезное беспокойство вызывает угроза историческим и культурным объектам мирового значения. В огне полностью сгорел буддийский храм Коунса в уезде Ыйсон - один из древнейших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снованный в 681 году в период Объединённого Силла. Национальные реликвии из храма удалось эвакуировать заранее, но само сооружение уничтожено.

Огонь подошел к деревне Хахве и конфуцианской академии "Пёнсан совон" - объектам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В Андоне власти срочно эвакуировали жителей, так как пламя вплотную приблизилось к этим уник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ам.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объявило максим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ревог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связи с угрозой историческим памятника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ят меры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ты в местах массового пребывания людей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е усилению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защит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а также мест массового пребывания людей.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систем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аппаратно-программ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планируется дальнейшая её модернизация, улучшен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е охвата объектов для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сейчас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порядок интеграции в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изображений с банкоматов и систем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ехнологий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

В современных реалиях, когда обстановка в мире мен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 это наша постоянная работа. Необходимо постоянн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наши системы защиты. Это касается и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оснащения объектов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ведомствами. Но не менее важна и работа с населением – нуж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людей о том, как правильно действовать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повышать их бдительность и готовность к любым вызовам. Важно, чтобы все службы работали слаженно и оперативно, и чтобы каждый житель области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надлежащего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поручено обеспечить исправность и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рамок металлодетекторо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истем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регулярность тренировок по проверке готов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ивлекаемых охранных структур к действиям при угрозе совершения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На заседании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идеологии терроризма и экстремизма и мерах по её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в Аниве появится школьная мастерская и безопасная дорога в спортшколу в Троицк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слушал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поездк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в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Инспекц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НФ выявила, что не все поручения главы региона исполнены надлежащим образом.

На встрече с населением к вам обращался педагог муниципальной школы в Аниве, ветеран СВО, с просьбой организовать мастерские по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е для уроков технолог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 отнесся к исполнению вашего поручения формально. Доложили,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астерских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 –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Юрье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 телефонному звонку подключил к совещанию мэр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у Швец.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создавать мастерские на уже действующих площадях.

Мы проведем переговоры и в рамках межсетев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рганизуем выездные уроки по кузнечному делу либо на базе техникума, либо на площадях Ассоциации ремесленников, – доложила Светлана Швец.

Это хорошее решение. Дети должны учить не только таблицу умножения, но еще и работать, чинить и мастерить руками, –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е региона также доложили, что по его поручению в гос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включ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и к новому спорткомплексу в Троицком. В 2027 году грунтовую дорогу, ведущую к спортивному объекту, заасфальтируют, обустроят тротуары с пешеходным ограждением и пешеходные переходы. Об этом просили родители школьников, посещающих секции.

Дети занимаются уже сейчас: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ходят в спорткомплекс каждый день.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д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дороги была обеспече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пешеходов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такого востребован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объекта,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НФ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гласился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обустроить временную пешеходную дорог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передано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Во время инспекции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контро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егиона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ыявили новую проблему – захлапленность подвал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ажно обращать на это внимание. Подвалы не только должны быть сухими, но и свободными от мусора.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вопросы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доб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отметила хорошее исполнение про-

грамм по ремонту подъездов и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дворов.

— Задачу по ремонту подъездов мы выполнили и имеем амбицию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дворы. В 2025 году мы должны охватить капремонтом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бъектов, чтобы ликвидировать отставание за предыдущие десятилет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задача поставлена главам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его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была провере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ая дисциплина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по 14 поручениям губернатор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посетила объекты в Аниве, Троицком, Новотроицком, Успенском, Таране.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запущенны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зван усилить надзор за выполнением поручений, которы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ает в ходе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в районы, встреч с жителями и прямыми линиями.

## В правила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внесли истор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суточная норма вылова горбуши увеличилась с 3 до 5 хвостов, а количеств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ест для рыбалки выросло с 55 до 79. Эти решения реализованы менее чем за год благодаря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работ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в сентябре 2024 год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льей Шестаковым и заручился его поддержкой.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поправки в Правила рыболовства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бассейна. С 1 апреля 2025 года эти исторические для островных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изменения вступят в силу.

— Шесть лет назад мы поборолась за три хвоста, теперь победили с пятью хвостами. Также мы увеличили число мест, где разрешено любительское рыболовство. Главное – что наши рыбаки довольны. Мы живем в том месте, где рыбалка – добрая традиция. В единственном 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пользоваться его лучшими дарами. Кроме того, каждый год мы снабжаем жителей свежесобранной рыбой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Эту работу тоже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должи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не просто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а настоящее событие для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 Каждый второй жител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влекается рыбалк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мы смогли оперативно согласовать позиц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центром, пересмотреть квоты и расширить доступ к ресурсам.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региона и федер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Сахалин подтверждает статус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мнение людей реально влияет на решения, – отметил Иван Радченко.

Нововвед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масштабной цифровизацией отрасли. Все рыболовные участки нанесены на интерактивную карту 2ГИС, что позволяет рыбакам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планировать маршруты, проверять границы зон вылова и соблюдать нормы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гион, где разрешен бесплатный лов горбуши, как и удобными, так и сетными орудиями лова. Напомним, в 2019 году именн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о разрешении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местах. До этого ловить горбушу можно было только по путевкам.

Кроме того, четвертый год на остров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 жителей всех район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свежесобранные дары моря по ценам, в два-три раза ниже рыночных, напрямую от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ализовано свыше 1,5 тысяч тонн свежесобранной сезонной рыбы. На этот год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до 2 тысяч тонн.

##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автодороги между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Сахалинским и посёлком Тымов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округ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района. Мероприятие в центральном район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вызвало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Зрительный зал на 300 мест был заполнен до отказ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неоднократно звучали вопросы о состоянии глав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артер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автодороги, соединяюще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 поселком Тымовское и через него с другими районами острова. Это более 60 километров грун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с ямами и лужами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и пылью летом.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и напрямую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района. При наличии нормального твердого покрытия был бы более значительным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тимул получил бы бизнес в сфере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Жалова-

лись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что доставка больных в соседний райцентр по плохой дороге занимает много времени. Эта острая проблема не решалась многие годы.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выделило необходимые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чтобы приступить к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дороги между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Сахалинским и поселком Тымовское. Работы стартуют уже нынешним летом. Современная дорога с твердым покрытием позволит сформировать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и других отраслей, созд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йона,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ксима Жоголева,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на девятикилометровом участке от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жител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ы о сохран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зашла о деревянном здании казначейства. Оно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в 1880 году и считается старейшей сохранившейся постройкой на Сахалине. До 1917 года здесь располагалось Казначейство поста 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так тогда назывался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егодня здание, представляющее немал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ценность, находится в аварийном состояни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тут же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выдел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средств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здани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муниципалитет должен организовать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экспертов. После него можно будет определиться, как сохранить здание для потомков.

Звучали также вопросы о переселени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качестве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В частности,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Михайловка, пожаловалась, что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утепления чердачного помещения у нее в квартире очень холодно. При этом отопление работает нормально.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ручил мэру уж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направить комиссию в квартиру женщины, провес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полнить нужные работы.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оступило 23 обращения к председател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се они приняты в работу.

Также Алексей Белик вручил меда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учителю – логопеду МБДОУ детского сада № 2 «Ромашка» Елене Михальцо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сестре операционной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БУЗ «Сахалинская межрайонная больница № 1» Александре Ищ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ому директору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ДРСУ» Дмитрию Хазиеву.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убернатора отмечены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 учебно-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е средней школы № 1 Елена Поселеннова и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центр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Радуга» Елена Иванов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вручены воспитателю детского сада № 2 «Ромашка» Светлане Смилянец, заместителю директора ООО «Ресурс-Плюс» Анне Черновой и электрогазосварщику ООО «Ресурс-Плюс» Евгению Николаеву.

## Более 1 млн рублей за некачествен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е дороги взыскали с подрядч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Претензионная работа по объектам нацпроек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позволила взыскать с подрядчиков за ненадлежащее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ри ведении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подрядчик, выполняющий их, обязуется выполнять их качественно и в срок. При этом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ут постоянный контроль над исполнением подрядчиком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В случае,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заказчик выявляет нарушения либо задержку в графике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подрядчик обязуется устранить их за свой счет и заплат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неустойк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цпроекта юридический отдел ГКУ «Управление Сахалинавтодор» направил претензии шести контрагентам. Общая сумма неустойки, которую после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ений обязались выплатить подрядчики,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Наш отдел контроля всегда строго следит за работами, выполняемыми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ах.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работ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Ведется контрол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недопущения нарушений или затягивания сроков, заложенных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нтракте. Каче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на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ь большинства подрядчиков позволила н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низить количество допускаемых нарушений до минимума. Однако, там, где наблюдаются проблемы, мы в полной мере используем данное нам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право о выдвигании подрядчикам претензий. Работа юридического отдела позволила взыскать с контрагентов общую сумму в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ненадлежащее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и около 8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задержку сроков,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ГКУ «Управление Сахалинавтодор» Вадим Думанский.

Строгий контроль за качеством выполняемых работ продолжится 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го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주 고려인마을, 고려인 디아스포라 삶 조명하는 한글문학展

## 독립운동가 조명희 선생과 선봉신문 발자취 재조명



광주 고려인문화관, '고려인 한글문학 기획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광주고려인마을 산하 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조명하는 한글문학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격동의 시기에 꽃피운 고려인 한글문학의 뿌리를 알리는 전시로, 독립운동가인 문학가 포석 조명희(1894~1938) 선생의 문학적 발자취와 고려인 한글 매체였던 '선봉신문'을 집중 소개한다.

고려인 한글문학의 토대는 1923년 창간된 선봉신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에게 선봉신문은 문예 창작의 장을 제공했다.

국내에서 시인·희곡작가·소설가 등으로 활동하며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에 몸담았던 조명희 선생은 일

제의 탄압을 피해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한 뒤 고려인 사회에서 문학 운동을 주도했다.

또 제자를 양성하고 시화집을 발간해 한글 문학의 저변 확대에도 이바지한 조 선생은 2019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조명희 선생의 주요 작품을 비롯해 당시 선봉신문의 원본 자료, 조 선생이 지도한 제자들의 문예 활동 흔적 등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선보인다.

내달 중에는 사할린 작가인 이정희 소설가와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김성조 부주필 초청 특강도 마련된다.

김병학 관장은 "고려인 문학인들이 일구어낸 소중한 자료를 토대로 선조들의 잊힌 문학사를 복원하고자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화를 넘어서: 러시아로 간 한인 이야기' 발간

## 20세기 초 러시아로 향한 한인, 귀화 속에서 찾은 생존 전략과 정체성 조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20세기 초 일본의 침략을 피해 고국을 떠나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정착 과정을 '귀화'라는 관점에서 탐색한 신간 '귀화를 넘어서: 러시아로 간 한인 이야기'(송영화 지음)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은 1905년 이후 러시아로 향한 한인들이 현지 사회에 적응하며, 귀화를 선택한 방식과 그 의미를 추적했다. 한인들의 경제활동, 정치적 입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귀화 이후에도 지속된 그들의 정체성 탐색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 러시아로 향한 한인, 귀화라는 선택과 도전

이 책은 1905년 이후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이 고국의 식민화와 현지 적응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대응했는지를 조명했다. 러시아 이주 한인들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귀화가 단순한 법적 신분 변경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존 전략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인들이 차별과 도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갔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귀화를 통해 러시아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내용을 수록했다.

### 풍부한 사료에 기반한 서술과 기존 연구를 뛰어넘는 입체적 분석

이 책은 한국, 러시아, 일본 등에 보관 중인 다양한 사료를 활용했으며, 전체 분량의 20퍼센트가 미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방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일본의무성 기록, 러시아 국립도서관 문서 등 당대 기록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강대국의 특

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러시아 귀화 한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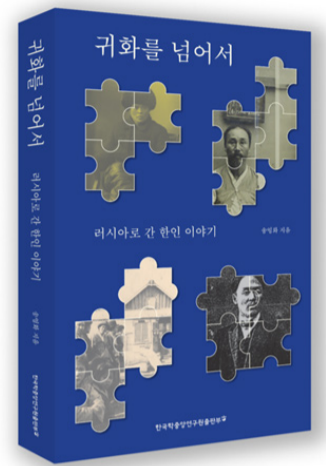
특히 기존 연구가 한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적 관점에 집중했다면, 이 책은 한인들의 삶을 보다 폭넓은 배경에서 조명했다. 아울러 국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임을 강조하며, 한인들이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대응했음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국적을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했다.

### 초국적 관점에서 본 역사 속 한인의 삶과 능동적 선택

이 책은 러시아 귀화 한인들이 역사의 격류 속에서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한 주체였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한인의 러시아 정착 과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회에 동화되거나 조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세히 추적했다. 또한 귀화라는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선택과 그 의미를 깊이 탐색하며, 한인 역사의 복잡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간 이들의 경험을 조명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이주와 국적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반도를 떠나 러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한인들—그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귀화를 넘어서: 러시아로 간 한인 이야기'는 그 깊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이 책의 저자인 송영화는 'MZ세대'에 속하는 신진 역사 연구자이자 개발



자로, '두 컬레의 짚신'을 신은 디지털 인문학자다. 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한인의 러시아 이주 역사를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러시아 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코리안타운 개척리 지적도>를 국내 학계에 최초로 공개해 주목받았다. 또한, 「1920년 '4월 참변' 후 일본의 통제와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거류민회」를 통해 해외 한인의 친일조직 문제를 다층적으로 조명하며, 러시아 한인 사회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북아 근대 공간의 형성과 그 영향』을 공동 번역해 한국, 일본, 러시아 학계 간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며 에듀테크 분야의 웹 개발자로도 활동 중인 그는, 전통적인 역사 연구 방법과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혁신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류의 이주와 관계망을 시각화하는 웹 서비스인 '히스넷뷰(HisNetVu)'를 개발·운영하며, 디지털 인문학의 최전선에서 연구자이자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 지난해 국제결혼 커플 2만1천쌍... 전년 대비 5.3% 늘어

## 국적별로는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아...이혼 건수도 증가 추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결혼·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여자와의 국제 결혼은 1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외국인 남자와의 결혼은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전체 혼인 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 감소했으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비중은 7.0%,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 비중은 2.3%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2.1%(1만5,624명)로 3년 연속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중국(16.7%, 5,017명), 태국(13.7%, 2,143명), 일본(7.5%, 1,176명), 미국(4%, 628명), 필리핀(3.9%, 605명), 캄보디아(2.3%, 363명) 순이었다.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1,479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

(17.6%, 905명), 베트남(15.0%, 771명), 캐나다(5.9%, 303명), 호주(3.2%, 164명), 영국(3.2%, 16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대비 태국 국적 여성과의 혼인은 4.3배나 증가했고, 외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인 경우 역시 동기 대비 2.7배나 늘어났다.

결혼율 만큼이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율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이혼 건수는 총 4,218건으로 전년(4,175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은 1,215건으로 전년 대비 8.3%나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1년(24.4%)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이후 베트남 국적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아니냐는 논란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5년 다문화 장학생 1000명 선발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4월 18일까지 신청 6월 중 결과 발표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25년 다문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공동 출연해 설립한 국내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으로, 설립 후 지난 13년간 6,700명의 학생에게 약 8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25년 다문화 장학사업 지원대상은 초·중·고·대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며 지난해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국내 최대 규모로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학업, 특기, 특별 등 총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학업장학금은 학교생활 및 학업 향상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950명을 선발하며 △특기장학금은 특기 및 재능을 보유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장학금은 법무부와 협력해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사각지대 다문화 자녀 2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학습컨설팅 △장학생 교류 활동의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장학금 사용 계획과 목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8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www.woorifoundation.or.kr)에서 가능하며, 장학금 사용계획 및 서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의료계, 법조계, 연예계,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크라노폴리에 마을의 학생들에게 학생 극장 생겨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의 크라노폴리에 마을 학생들에게 자체 극장이 생긴다. 이는 '청년 예산' 기획에 참여한 덕에 가능했다고 지방자치체 재무국이 전했다.

현재 학교에는 연극 공연을 위해 화려한 의상과 인형까지 새로운 소품들과 필요한 자료들이 생겼다. 스웨틀라나 포포와 교감은 "연극은 단순히 놀이가 아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상상의 세계를 펼치며, 그룹을 구성해 활동하는 법을 배우는 생활학교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는 자아 형성에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라며, 이 기획이 학교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공연이 더욱 밝고, 흥미로울 수 있도록 학교 측은 강당에 기술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곳에 현대적인 조명과 필요한 장비와 가구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이다.

## У школьников из села Краснополье появится собственный театр

У школьников из села Краснополье Углед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коро появится собственный театр.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в проекте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фина.

Теперь в школе появятся необходим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постановки спектаклей: от новых декораций до ярких костюмов и кукол. О создании творческой площадки ребята мечтали давно.

— Театр — это не просто игра. Это школа жизни, где дети учатся понимать и выражать свои чувства, проявлять фантазию и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Для многих учеников это станет важным этапом в становлении личности, — отметила советник директора по воспитанию Светлана Попова. Она считает, что проект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азвития школьников.

Чтобы выступления ребят были ярче и интереснее, в школе проведут техническое обновление актового зала. Здесь установят современное свет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закупят необходимую технику и мебель.

## 러시아 국민들 사이 사할린주에서의 휴양 수요 1년 만에 4배 증가

2025년 4월에 사할린주와 칼미키야 공화국에서의 휴식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24년 4월 대비 4배나 증가했다. 휴양지로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로는 이와놉스카야주, 월로그다주, 크림 공화국이라고 '타스'통신이 '안텍스 여행'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했다.

전문가들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휴식하기에 좋은 곳으로서 가장 빠르게 급등하는 지역들로 칼미키야 공화국과 사할린주가 올랐다. 칼미키야 공화국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은 300% 증가했고, 사할린주는 293%가 증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칼미키야 공화국과 사할린주는 다소 예상치 못한 곳으로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이 독특한 문화를 지닌 곳과 자연적 명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새롭고, 신비로운 국내의 외딴 지역을 향한 탐험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4월에 이와노와주와 월로그다주로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2.3배 증가했고, 크림반도와 카라차예워-체르케스 공화국으로의 여행은 99%로 인기를 더 얻고 있다.

여행객들은 휴식을 위한 여행지로서 케메로워주(+69.5%), 아스트라한주(+66%), 노브고로드주(+62.5%), 리페츠크주(+62%)를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 Спрос россиян на отды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 за год в четыре раза

В апреле 2025 года спрос на отды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алмыкия вырос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в наи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 в четыре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прелем 2024 года. В топ-5 быстрорастущих регионов также вошли Ивановская и 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рвиса «Яндекс путешествия».

Как отметили эксперты, самыми быстрорастущими регионами для отдыха среди туристов стали Республика Калмыкия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Калмыкии интерес к путешествиям вырос на 300%, 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293%.

«Все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у россиян набирают довольно неожидан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 такие, как Калмыкия и Сахалин. Это связано с продолжающимся интересом россиян к уникальным культурным и природным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а также с желанием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новые, неизведанные уголки страны», — добавили эксперты.

В апреле спрос на поездки в Ивановскую и Вологодскую области вырос в 2,3 раза. Поездки в Крым и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стали 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и на 99%. Также туристы активно выбирают для путешествий Кемеровскую (+69,5%), Астраханскую (+66%), Новгородскую (+62,5%) и Липецкую (+62%) области.

В период с марта по апрель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ках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проявили интерес жи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34%) и Сибирского (+33%)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Также в топ-5 вошли Южный (+22,5%), Центральный (+16%) и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й (+12%)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По данным «Яндекс Путешествий», россияне в апреле проявили повышенный интерес к следующим населенным пунктам: Домбай — спрос на поездки в этот регион вырос в 2,6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Ялта — рост в 2,3 раза, Коломна — интерес к этому городу вырос в 2,1 раза,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 увеличение спроса на 81%, Астрахань — рост на 80%.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рвис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данные о поиске и бронировании отелей, апартаментов и других вариантов размещения в апреле 2025 год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Лужники М<sup>2</sup>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